

#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님이다

##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도업 스님

경북 경주는 천년 고도(古都)이다. 석굴암, 불국사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처처에 널린 곳이 경주다. 지금도 땅을 파면 곳곳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삼칠하기가 두려울 정도라는 지역민의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신라의 수도로 번영을 누려온 곳이다.

동국대는 조계종립 민족사학이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기념시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에서 보이듯 만해 한용운, 박한영 스님 등 선지식들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켰다. 김법린·백성욱 박사는 총장으로 동국대의 발전을 이끈 지도자였다. 하지만 오늘의 동국대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찾았다. 경주와 동국대의 만남.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찾는 길은 이런 사실들만으로도 가슴 가득 설레게 했다.

경주시 석장동에 자리한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도착했다. 캠퍼스 곳곳에 넘쳐있는 젊음에서 천년 고도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끊이지 않고 있음이 느껴졌다.

6월 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상관에서 정각원장 도업 스님(불교학부 교수, 부산 화엄법계사 주지)의 퇴임강연회가 열렸다.

도업 스님은 화엄학의 대가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로 스님은 25년간 후학들을 지도했다. 직접 사사받은 제자가 아니어도 화엄학에 관심을 둔 연구자라면 <화엄경사상 연구> 등 화엄과 관련한 스님의 저술과 논문을 접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다.

화엄학 선지식 도업 스님의 퇴임기념 강연 시작을 즈음해 대중들이 자리를 매우기 시작했다.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서울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 동국대 보광 스님을 비롯해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최규철 동국대 이사 등이 도업 스님의 퇴임강연을 축하하려고 자리했다. 행사가 열린 백상관 컨벤션홀은 어느새 700여 사부대중으로 가득 찼다.

행사가 시작되고, 내빈의 인사말씀 화환증정 등이 있을 후 도업 스님이 단상에 올랐다. 스님의 첫마디가 궁금했다.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예불을 올리고 있습니다."

25년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수차례 정각원장을 역임했던 스님의 첫마디였다. 아마도 자리한 동국 구성원들에게 매주 화요일 예불 참석을 권하는 한마디, 건학이념을 바로 세우고, 불자로서의 근본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도업 스님의 일갈이리라.

스님은 "예불을 마칠 무렵 한 가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정년퇴임을 앞둔 소감을 묻더라"라며 말을 이었다.

"시원섭섭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시원하고 무엇이 섭섭하나'고 반문하더군요. '시원한 것은 25년간 짜여진 교과일정에 따라 수업하고, 소임을 맡아 책임을 다하려 애썼던 생활에서 벗어난 점이

시원하다. 섭섭한 것은 후학들과 함께 한 강의시간이 가장 즐거웠는데 그 시간이 끝났으니 섭섭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도업 스님의 강의시간은 딱딱하지 않기로 정평이 났다. 지루하지 않기로도 유명했다. 화엄학 강의나 경전강독 등 다수의 강좌가 있었지만 매 강좌마다 스님과 학생들은 생각난대로 느슨하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도업 스님은 "학교에서 25년, 승가에서 40여 년을 살다보니 운명이 있더라"라고 말했다.

출가 전 스님이 해인사를 찾았을 때 일이다. 용담에서 해인사로 건너오는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도업 스님은 그곳에서 한 스님을 마주했다.

'키 작은 스님'으로 기억된 그 스님에게 도업 스님은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키 작은 스님'은 아무 답이 없었다. 도업 스님이 다시 물었다. "스님 저도 출가할 수 있습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키 작은 스님'이 답했다. "참 기록한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도업 스님은 출가했다.

스님은 "불법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참 즐거웠다"라며 "학교에서 25년 있었던 것도 불법을 만난 인연 덕분, 절에서 신도님들 만난 것도 불법을 만난 인연 덕분"이라고 말했다.

운명이 있다 했는데 화엄학 대가 도업 스님은 어떤 인연으로 화엄학을 공부하게 됐을까?

1976년 스님이 일본 유학길에 올랐을 때다. 교토 불교대로 유학했는데 학교에서는 스님에게 연구계획서를 요구했다. 400자 원고지 6매 분량이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당시 뚜렷한 전공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떠났던 유학길이었죠."

그때 도업 스님은 인환 스님(前 동국대 선학과 교수)을 만났다. 인환 스님이 동경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에 건너갈 즈음이었다.

"함께 인환 스님을 만난 무비 스님은 '불교사회복지학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전공인데 한발 늦었죠."

막연했던 스님에게 인환 스님은 "한국 불교는 화엄불교입니다"라고 말했다. 도업 스님은 "화엄을...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었고, 인환 스님은 "균여 스님 저술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요"라고 답했다.

그 후 도업 스님은 균여 스님의 저술을 중심으로 화엄학 연구에 매진했다.

"화엄학을 공부하니 자연히 <화엄경>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화엄을 공부하니 세상이 정말 즐거웁습니다. 가면 가는대로, 오면 오는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좋았습니다."

스님은 "선, 정토 등 불교의 여러 분야 가운데 화엄을 만난 것은 굉장한 행운이며 행복"이라고 찬탄했다.

스님은 <화엄경>의 백미로 여래출현품을 손꼽았



## 화엄학 연구의 대가, 25년 후학지도 마치며 "시원 섭섭하다"

## 모든 생명체가 갖춘 공덕과 지혜, 망상 버려야 제대로 보여



다. "40·60·80권 <화엄경> 중에 부처님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텐데, 여래출현품 같습니다."

도업 스님은 <화엄경> 여래출현품의 '널리 일체 중생을 돌아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처님의 지혜 덕을 갖춰건만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서 중독하지 못할 뿐이다(普觀一切衆生 具有如來智慧德相 但以妄想執著 而不證得)'라는 구절을 인용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공덕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마음속에 미온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고놈' 하고 버리는 그런 놈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공덕을 구족했지만, 조심할 것이 있다"며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은 중생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0권 <화엄경>의 제1장 제1품이 무엇인고 하니, 세간정인품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세간을 보는 눈에는 우리 같은 중생의 눈(染眼)과 부처의 눈(淨眼)이 있거든요."

도업 스님은 "부처님이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눈으로 보니 모든 사람들은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공덕이 있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위에 펼쳐 아프고 짜증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우리의 잘못된 망상, 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화엄적 세계관을 세상을 보면, 좋은 일은 좋고, 안좋은 일도 좋고 세상 처처가 인타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해야 화엄적 세계관을 갖고 마음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도업 스님은 "술을 잘 먹는 사람이 곁에 있어 짜증난다면, '술을 많이 먹는 것은 저 사람의 업이 그럴 뿐'이라고 여겨라. 저 사람의 본성자리는 부처님과 같이 청정무구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자타(自他)의 본성을 살피는 것을 성철 스님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고 말했다. 서울 불광사

### 도업 스님은...

1944년 충남 공주 출생. 1969년 완규 선사를 은사로 해인사에 입산했다. 1972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 승학과 1기로 입학했다. 1976년 일본 교토 불교대에 유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정각원장, 불교문화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 화엄법계사 주지, 대가회·금정학원 이사, 8월말 정년퇴임 예정이다. 저서로는 <화엄경사상 연구> <불교사상의 이해> <산학대지가 내 몸이다> 등이 있으며, <일본 화엄 원류 제고>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경계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허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림원의** 충북 청원군 북이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데진 스님

##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다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더 나은 겁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